

“안전성 확보없이 양돈산업의 미래없다”



최영열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안녕하십니까? 대한양돈협회 회장 최영열입니다.

최근 정부의 한·미 FTA 추진 등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계는 그 앞날을 한 치도 예견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 우리 양돈농가들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최근 소비자들이 웰빙을 선호하면서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달 30일 YTN에서 보도된 「항생제 과다주사 돼지고기 유통」 보도, 지난 1일 SBS 방송의 「식탁을 위협하는 항생제 돼지고기」 보도, 8일에는 KBS 를 통해 「식탁에 항생제 가득? 항생제 덩어리 가축 유통 실태」 등 양돈농가 항생제 남용실태 관련한 뉴스가 연이어 전국에 전파를 뒀습니다.

방송내용은 하나같이 축산 농가가 질병에 걸린 돼지를 치료하기 위해 과다하게 항생제를 마구잡이로 투약하고 있으며, 이런 돼지가 무분별하게 출하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서,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우리 양돈농가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없이 양돈산업의 미래없다”

특정농가의 실수가 양돈산업 위기 불러온다.

물론 이번 항생제 보도 과문과 관련해 양돈협회에서는 신속한 대처로 그 과급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특정 농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에겐 마치 전체 양돈농가의 현실인 것처럼 비취질 수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의 우리 축산물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양돈자조금 등을 이용한 양돈산업 이미지 제고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양돈농가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언론매체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양돈농가의 사례가 전체 양돈인의 명예에 먹칠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해 주시고, 양돈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 양돈농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양돈농가들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되고 있는 항생제 휴약기간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잔류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질병 청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돼지열병 근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돼지열병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우리 양돈농가들께서는 돼지열병 근절의지를 가지고 백신접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에서 보았듯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회적 과급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돈협회 또한 양돈농가에서 질병 없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농장 시설개선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우리양돈농가와 협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양돈산업이 될 수 있도록 양돈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돈농가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돈